

월요광장

종갓집 김장



정유진  
코리아컨설턴트 대표

근래 서울을 더 크게 키워보겠다는 발상에 답답함을 느끼던 차에 지역 삶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워준 의미 있는 경험을 하나 했다. 지난 주말 김장을 함께 하면 좋겠다는 반가운 전화 한 통을 받았다. 370년이나 되는 종갓집 맛을 대대손손 지켜온 명인 맥의 김장 초대를 어찌 마다할 수 있을까. 소위 '인생 샐' 한 장 남기는 것처럼 '인생 김장'의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리하여 나이 50에 난생 처음 김장이란 것을 해보 기 위해 종갓집이 위치한 담양으로 향했다. 툇개이트를 빠져나와 창평면으로 가는 길은 처음 가는 길도 아니건 만 유심히 보니 지나가는 동네 어귀가 새삼 달리 보였다. 마치 유명 상품의 특화 거리처럼 쌀엿과 한과 등 전통 음식과 관련한 명인들의 명패 걸린 집들이 이어졌고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는 듯한 시골 마을의 정취가 살갑게 느껴졌다.

역시 종갓집 김장 스케일은 달라도 달랐다. 마당에 김장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은 5성급 호텔의 한식당을 비롯해 미술쟁 1스타를 받은 몇몇 레스토랑의 셰프들

과 한과명인 등 다양한 식품업계에 종사하는 전문인들이었다. 이들은 지난 10주 동안 제주, 서울, 경기도 등 전국 각지에서 먼 길을 마다 않고 매 주말마다 이 곳에 모여 열과 성의를 다해 전통 발효장을 공부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을 수료하는 날 김장을 담그기로 했다는 것이다. 얘기를 더 들어보니 이들 외에도 국내는 물론 해외의 지원자들도 많아 곧 두번째 발효학교를 준비 중에 있다고 했다. 종갓집 대대로 지켜온 전통 장맛이 전국은 물론이고 세계의 음식 연구가들을 시골 마을에까지 모여 들게 한 것이다.

김장을 한 뒤 갖 버무린 칼칼한 김치에 삶은 돼지고기를 함께 먹는 자리에서는 김장문화에 이어 2024년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한국의 장문화를 등재하기 위한 노력 등 우리 음식을 지켜가는 흥미로운 활동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갑갑한 시골길을 뚫고 집에 돌아온 이날 이후 종갓집의 경험은 큰 여운으로 남았다. 그리고 시골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진정성, 그 진정성이 발휘된 로컬리컬이 담긴 공간과 장소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보통 어떤 공간에 매료되는가. 여행을 떠난다고 가정한다면 자연경관이나 건축물 등 특별한 공간들을 갖춘 장소들을 떠올리기 쉬운 것이다. 하지만 해를 거듭하며 세계적 햇빛과 바람을 받으며 버티온 수백개의 빛나는 장독들이 얼마나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지, 힘을 발휘하는지는 글로 다 표현하기는 어렵다.

요즘 온 나라가 메가시티 조성으로 들쭉이고 있다. 전국의 지역 자원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같은 서울에

대항하려는 듯이 대두되었던 메가시티는 서울이 들고 나서더니 이제는 광역도시권에서도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발전과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 각 지역 간의 행정과 경제를 통합해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선동카드로 쓰이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들의 메가시티로의 전략은 사실상 지역 생존의 기로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모색해 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사례들을 적용해 지역의 불균형 그리고 지방소멸과 도시문제 해결에 특약약으로만 다루져서는 안될 것이다.

어디선가 지방자치기 제대로 작동하면 지방은 저만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읽은 기억이 난다. 지역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발굴하고 특화해 야 지역의 생존이 지속될 수 있다는 그 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 어느 때보다 자기가 속한 삶의 터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놀라운 것은 지방소멸과 도시문제 위기에 직면했다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전통을 지켜가며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지역 도처에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자기의 터전을 묵묵히 지켜가며 살아온 사람들이 평생의 노고로 그들의 공간을 지켜가고 더 나아가 특별한 장소로 만들어감에 더 없이 감사함을 느끼는 요즘이다.

인문지리학의 대가 아-푸 투안의 저서 '공간과 장소'의 표지에 수록된 '공간에 우리의 경험과 삶, 애착이 녹아들 때 그곳은 장소가 된다.'는 문장처럼 살아 숨쉬는 장소들이 지역 곳곳에 넘쳐나길 바란다.

수필의 향기

옛집 그 마당



김향남  
수필가

아침, 마당 있는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평설거지를 하다말고 나도 모르게 푸념을 쓴다. 평소에는 괜찮지만, 오늘처럼 김장이라도 하는 날엔 주방 개수대가 유난히 좁게 느껴져서다. 물은 튀고, 큼직한 양푼들은 주체하기도 어렵다. 마당이 있으면 할랑할랑 편하게 했을 일이다. 쪽장 너머로 하늘은 흐리고, 문득 숨어 있던 풍경 빛이 고개를 들고 일어난다.

늦가을, 아니 초겨울쯤 되겠다. 드문드문 눈발이 날리고 바람도 조금 불었던 것 같으니가. 엄마는 장광 옆 날찍한 마당에서 김장을 했다. 옆집 할머니도 오시고 종신이 엄마, 표수 엄마도 일손을 더했다.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와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가 마당에 가득했다. 수북하던 배추는 어느새 발갛게 무무려져 향아리 속으로 들어갔다. 김장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긴 겨울이었다. 그럴 때면 마당도 할 일을 마친 듯 휴식에 들어갔다. 고추도 콩깍지도 없는 빈 마당은 우리들의 놀이터가 돼 주었다. 고무줄놀이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땅따먹기도 했다.

마당은 잔치판도 되었다가 놀이판도 되었다가 장례

식장도 되었다. 언니의 혼산날, 청사초롱 내걸린 마당엔 높다란 지붕처럼 차일이 쳐졌다. 손님들은 옥자하고 잔칫상은 풍성하고 화려했다. 혼례상엔 수북하게 쌓아 올린 떡이며 과일이 놓여 있고, 푸른 솔가지와 대나무도 꽂혀 있고, 동백도 몇 송이 붉은 꽃을 피웠다. 이윽고 사모관대 갖춰 입은 신랑이 당도하고 방 안에 있던 신부도 마당으로 나왔다. 원색의 예복은 눈부시게 화사했다. 연지근지 찍고 족두리를 쓴 언니는 먼 나라의 공주처럼 예뻐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다. 너무 어렸을 때 일이라 기억도 희미한데, 엇그제 마침 그때 찍은 사진을 보았다. 신랑신부를 중심으로 한 가족사진이었다. 거기에는 색동저고리 입고 눈썹이 보일 듯 말 듯 앞머리를 반듯하게 자른 다섯 살짜리 소녀도 있었다. 아버지 품에 꼭 들어가 있던 그 조그만 계집애를 나는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설 지나고 보름이 되면 마을엔 한바탕 굿만이 벌어졌다. 종일토록 매구 치는 소리가 갖가에 쟁쟁했다. 마을회관 앞 당산나무 아래서부터 시작된 매구 행렬은 동네 우물을 거쳐, 솔고래 장전양반네, 보배덕, 화순덕, 유정덕, 봉동덕을 거쳐 맨 꼭대기에 있는 우리집까지 올라왔다.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부엌이며 장독대, 뒤꼍을 돌아 다시 마당으로 나와서는 더욱 요란하게 매구를 쳤다. 그 사이 엄마는 전과 불과, 유과 등을 걸게 차려 술상을 내었다. 사람들은 불과하게 말아올라 무장무장 신이 났다. 매구 소리는 더 크고 더 높게 퍼져 아무리 요사한 잡신이라도 걸음이나 살려라, 쫓겨라를 놓을 판이었다. 나는 '깨갱깨갱' 수선스럽기만 한 저 소리가 어서 그

치기만을 바랐다. 어른들의 그 요란한 놀음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참 이상도 하지. 지금은 아무리 들어도 물리지를 않는 것이다. 뭔가 가슴 저 밑바닥을 휩쓸고 울리와 어깨까지 들썩이곤 한단 말이지...

언제부턴지 마당엔 삐죽삐죽 풀들이 돋았다. 금세 마루 밑까지 치고 올 기세였다. 엄마는, 뉘 놈의 풀은 이렇게나 났겠고, 성가셔하시더니 댕돌 아래 두어 길만 남기고는 뒤편 심어 버렸다. 평생 징글징글 풀매기 바꿨던 엄마는 앞마당을 흥랑 풀밭으로 내줄 수는 없었다. 못 말리는 올 엄마, 마당을 온통 가내농장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도 생가의 채송화는 오롯이 살아서 톡톡톡 맑은 꽃을 피우고 있더라. '알뜰알뜰 하도 이빠서, 그들도 보여주고 자운(심은)', 엄마를 위한, 엄마의 꽃이었다.

오래전 겨울, 아, 그날 아침 풍경은 지금도 선하다. 겨울이 깊어도 오지 않던 눈이 그날 아침 소복히 쌓였다. 눈 위에 상여가 놓여 있었다. 빨강 노랑 하양 꽃들을 탐스럽게 매달고서 눈 쌓인 마당에 등두렷이 놓였다. 세상애나, 나는 상여가 그렇게 어여뵈 줄 몰랐다. 멀리서만 봐도 공연히 무섭기만 했는데 그런 마음은 하 나도 없었다. 하늘하늘 어찌나 맑고 화사한지, 낮을 잃고 바라보았다. 몽클, 가슴조차 두근거렸다.

"하이따, 날 좋네. 우리 아침 가신다고 하늘도 아시능갑따."

상여꾼들이 오고, 엄마는 그들의 어깨 위로 등실 올라섰다. 그리고는, 요령소리를 따라 너울너울 동구 밖으로 향하셨다. 눈은 펄펄 내리고...

기고

광주 군공항 이전, 지역소멸 대응 관점에서 접근해야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우리 사회는 이미 '팽창의 시대'에서 '수축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나아가 머지않은 장래에는 '소멸의 시대'로 이어질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상도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특히 지역의 소멸은 현재 진행형으로 그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 산업과 금융, 사회 인프라, 문화, 정보 등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이에 따른 지역의 인력 특히 청년들의 유출 현상이 심각하다. 그야말로 지역은 더 이상 자생할 수 없는 빈 껍데기만 남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행한 '통계로 본 지역고용 보고서'는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무려 118곳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전남은 소멸위험지역이 81.8%에 달한다. 그렇다면 이 소멸의 시대에 지역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것인가, 즉 지역의 생존 문제가 다시 중요하면서도 절박한 화두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최근 '메가시티'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많은 지역에서 이에 관심을 두는 것은 현재의 상황으로 지역 소멸을 피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메가시티는 단순히 인구와 면적 등 규모만 늘리자는 식의 접근으로 안된다. 국토 불균형 발전의 주범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의 심화를 초래하는 방식도 안된다. 대신 주요 집적지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도 안된다. 대신 수도권 집적지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도 안된다. 대신 주요 집적지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도 안된다. 대신 주요 집적지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도 안된다.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지역 간 기능적 배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광주 군공항 이전은 소멸의 시대에 대응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관련 산업의 대대적인 육성과 이를 통한 인구 유입은 지역 소멸을 막는 매우 유용한 대안이며 군 공항 이전을 통해 그 단초가 제공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광주시는 군 공항 유치지역에 대해 지역개발사업지원금으로 기존 지원사업비 4508억원에 자체 재원을 추가하여 총 1조원을 조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햇빛연금, 국제학교 등 맞춤형사업 지원과 광주시 인제교육원 등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유치지역 농수축산물 전용 판매장을 광주에 설치하며 이주단지과 정주시설 등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지원 계획도 마련될 것이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을 선정하고 활주로 위치, 방향, 비행 경로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오해가 여전한 것 같다.

근거 없는 추상적인 말들로 서로를 이간질시키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떠돌고 있는 여러 오해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간 상생 발전을 담보하는 핵심이다.

이제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은 대화에 나서야 한다. 조속히 상생의 테이블부터 마련해야 한다. 대화하지 않으면 신뢰를 쌓을 수 없다.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군 공항 이전이라는 초대형 프로젝트 또한 성사시킬 수 없고 더불어 소멸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소중한 선택지 하나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고민해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치열한 논쟁과 토론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배려하며 역사사지의 자세로 이견을 좁혀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상생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이다.

긴 안목으로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역의 발전과 생존이란 대의적 관점에서 이해를 모아야 한다. '인기를 얻는 것은 인기를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거시적이고 항구적인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라도 주도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선구자적인 자세가 지금은 절실한 필요할 때이다.

社說

'변방의 호남정치' 바꿀 사람은 결국 유권자다

내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사실상 시작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가능한데 내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당장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어깨띠를 두른채 명함을 배포하는 등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은 여야를 떠나 어느때보다 인물난을 호소하고 있다. 호남이 텃밭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은 상실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예산이 곧 본선'인 지역 특성을 감안할때 역량있는 후보자들이 넘쳐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초선이 많은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은 지도부 눈치를 보며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출마 예정자 대다수는 당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는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도부에 쫓겨서만 잘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현역 의원들은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출마 예정자들은 '이재명 마케팅'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유권자들 사이에 벌써부터 짝을 후보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지역 어젠다를 발굴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공천 받기에만 급급하니 유권자들이 실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 의협과 정의당, 진보당 후보 역시 인물난이긴 마찬가지다. 호남에선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지만 이들도 지역 현안에 이렇다할 의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래저래 호남정치가 갈수록 변방으로 밀리고 있는 것은 한때 민주당 당원의 절반을 차지하던 호남사람들의 비중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도 원인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결국 유권자들이 경선과정부터 후보들을 꼼꼼하게 검증해 지도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를 가려내야 한다. 정당 지도부에만 맡기지 말고 유권자들이 호남정치의 변화화를 막을 인물을 발굴해야 한다.

신군부 핵심 생존 3인 '5·18 진실의 입' 열어야

영화 '서울의 봄'이 6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전 연령층에서 고무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다 영화를 보고 난 관객들의 평점도 좋아 이런 추세대로라면 다음 주말에는 1000만 관객 달성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서울의 봄'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광주 5·18과 연관이 깊다. 쿠데타에 성공한 전두환 등 '하나회' 핵심 세력들은 국내에서 민주화 열기가 거세지자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했다.

광주 진압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전두환을 비롯해 노태우·황영시가 세상을 떠난 가운데 정호용·최세창·장세동 등 생존해 있는 핵심 관계자들이 5·18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세창은 당시 광주에서 최초로 민간인

을 향해 집단 발표를 자행, 최소 5명의 시민 목숨을 앗아간 제3공수여단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장세동은 당시 특전사 작전 참모로 5·18 직전부터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직접 보고를 하기 위해 광주에 와 상황을 살피고 계엄군에게 진압작전에 대한 조언을 해줬다.

정호용은 12·12쿠데타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이를 뒤 특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내 차례에 걸쳐 광주와 서울을 오가며 공수부대 3개 여단장들과 접촉, 진압대책을 논의했고 5월 27일 도청을 진압하는 공수부대에겐 군수품을 제공했다.

전두환·노태우 등이 5·18과 관련한 증언을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생존해 있는 최세창·정호용·장세동에게 향해 있다. 지금까지 5·18에 대한 사회적 여론은 물론 핵심 증언을 한 적이 없는 세 사람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까지라도 정확한 증언을 통해 5·18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無等鼓

알브레히트 뒤러(1471~1528)는 '독일 미술의 아버지'로 불릴 만큼 존경을 받는 화가다. 그의 대표작 가운데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 있다. 독일 가정에서는 복사본을 소장하는 것이 유행일 만큼 인기가 높다. 그림과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아름다운 우정을 모티브로 한 내용이 대표적이다.

뒤러에게는 프란츠 나이스타인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두 사람은 화가가 꿈이었지만 가난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별 수 없이 준비빨기로 먼저 공부할 사람을

'따뜻한 손'

정하기로 했는데 운 좋게도 뒤러가 선택이 됐다. 시간이 흘러 뒤러는 나이스타인의 뒷바라지 덕분에 훌륭한 화가가 된다. 그러나 자신을 돕기 위해 거절어진 나이스타인의 손을 보고 뒤러는 미안함과 슬픔을 느낀다. 친구를 위해 그림을 그렸는데, 그 작품이 바로 유명한 '기도하는 손'이다.

얼마 전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 미로센터에 '따뜻한 손'이라는 조형물이 설치됐다. 조형작가인 최명근이 광주의 5·18 등 기억자원을 모티브로 구현했다. 대나

무를 엮어 형상화한 작품(세로 10.4m×가로 5.4m)은 파스함과 위안을 준다. 최작가에 따르면 따뜻한 손으로 대변되는 '대나무 인간'은 인간에 대한 성찰과 공동체성을 담고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빛진 마음이 있었습니. 오월 광주는 '나'라는 개인을 넘어 모두의 아픔이자 슬픔이었어요. '따뜻한 손'을 제작한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우리시대에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라는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 불황 등으로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예전만 못한 것도 사실이다. 물론 '따뜻한 손'이 물질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픔에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만 있어도 누군가에게는 적잖은 힘이 될 것이다. 뒤러의 '기도하는 손'과 최명근의 '따뜻한 손'은 오늘의 우리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의 '움켜진 손'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 박성천 문화부장·편집국 부국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에ditor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